

제 56 호

애아트리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V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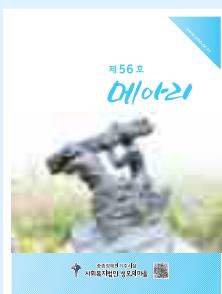


Contents

제56호

애아트

2016. 7



발행일 | 2016년 7월 8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 03. 여는글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워라 / 김영교 신부님
- 04. 장애인스포츠 보치아
나는 비상하고 싶다 / 송일만
- 05. 사랑방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박재성
- 06.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옹달샘에서 힐링～♪” / 조주영
- 08. 어울림
요셉반을 소개합니다
- 10. 프로그램방
사회체험, 외식프로그램 / 생활재활팀
- 11. 외부지원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2016행복프로그램”
- 12. 봉사방
꿈★을 위한 한걸음~ / 이민선
- 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15.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
- 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
- 18. 수입지출현황
- 19. 성모의기사수녀회

여는글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워라

† Maria



김영교 신부님

남녀 장애인 83명이 함께 사는 이곳 ‘성모의 마을’에는 많은 봉사자들과 위문 공연 팀들이 자주 방문해 멋진 공연을 해준다. 군부대에서부터 학생들, 회사원들, 동호회원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며 모든 이를 즐겁게 해준다. 그분들의 예술성과 역량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연하는 자세가 참으로 감동적이다. 몸이 불편하여 박수를 제대로 칠 수 없고 발음도 어눌하여 힘찬 환호성의 응답도 없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열과 성을 다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베풀려는 자세가 아니라, 최고의 무대와 관객들 앞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듯, 진지한 모습들이다. 공연이 계속될수록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행복해하고 충만한 감사를 느껴, 참으로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런 유쾌함과 진한 감동들이 곧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깊이 전이되어온다. 그런 현상을 일컬어 ‘마더 데레사 효과’라 한다는데 참으로 맞는 말로 여겨진다.

언젠가는 한 중년의 가수가 혼자 찾아와, 자신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포함하여 많은 애창곡들을 온 정성을 다해 부르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식구들도 흥에 겨워 동참하는 중에, 장애인 한 형제가 훨씬 바퀴를 힘겹게 돌려가며 가수 앞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음악을 무척 좋아하여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다. 발음은 정확하지 못하여 남과 통교하는 데는 서툰데도 노래만큼은 더듬지 않고 정확하게, 박자조차 틀리지 않는 특이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가수 역시 자기에게 다가오는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자연스레 노래가 중단되었다. 그러자 장애인 형제는 무척이나 더듬는 말투로, 그러나 또박또박하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여 뵙고 싶었던 가수님을 이렇게 직접 뵙니 영광입니다. 제가 가수님이 작곡하신 ‘눈물 젖은 뺨’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저와 함께 그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겠지요?” 하는 것이었다. 순간 가수의 표정은 당혹감과 놀라움, 감동으로 차오르는 듯했다. 잠시 침묵으로 장애인의 얼굴을 응시하던 가수가 쾌히 승낙하며 그 노래를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신나게 따라하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오히려 가수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울려왔다. 노래가 끝나자 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노래를 이처럼 좋아하는 분을 이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전 오늘같이 큰 감동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거푸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다음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식구를 볼 때마다, “우리 000 가수!” 하며 어깨를 톡 친다. 그러면 그는 해맑게 웃으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며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다.

장애인 스포츠



나는 비상하고 싶다

송일만
성모의마을 거주인

보치아라는 스포츠 종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 어려운 경기가 아니다. 흰색 공인 표적구를 기준으로 빨간색공과 파란색공을 던져 표적에 가까운 공의 갯수만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거리감과 던지는 각도가 중요하다. 힘과 기술을 기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이런 보치아를 시작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논산시 대표로 도민체전에 출전하고부터이다. 갑작스런 출전으로 겨우 한 달동안 연습하고 대회에 나갔는데 예상외로 동메달을 따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보치아라는 경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마음처럼 대회에서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그만두려고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도 포기하기에는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한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더 노력해보기로 결심하고 시간날 때마다 연습을 했다. 물론 매번 대회에서 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천안에서 열린 충남어울림 대회에서는 정팀장님과 짹을 이루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가끔 성적이 안나와서 실망할 때는 예전에 수상한 메달과 상패를 보면서 위로하기도 했다. 그 많은 대회 중 가장 아까웠던 때는 내 실수로 경기에 졌을 때다. 그러면 대회 후에 얼마동안은 그 생각이 계속 나기도 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마저도 없어졌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내 자신에게 용기를 줬다. 그러다보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팔힘이 많이 없어져서 최근 몇 년 간 경기 때마다 상대방이 표적구를 멀리 던져 힘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표적구를 멀리 던져놓고 파워를 늘리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현석이형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경기할 때 공을 멀리 던지라고 해서 맞춤연습을 하고 있다.

올해 충남장애인체전이 부여에서 개최됐다. 나는 논산시 보치아 대표로 체전에 참여 했다. 별써 7번째 출전이고 긴장 속에 첫 경기를 했고 비록 4점차로 쳐서 또 1회 전 탈락을 했다. 하지만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회에서 1승을 하 고 4강도 가고 단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다시 또 탈락의 고배를 마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 비상을 꿈꾸며 공을 던지고 또 던질 것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보치아는 내 삶의 일부이고, 노력의 결과는 언젠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그동안 날 도와주려 애쓰셨던 원장님과 직원들 늘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항상 노력하고 비상하는 내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사랑방

편견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박재성
성모의마을 거주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난 장애인이다. 맞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장. 애. 인. 몸이 불편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밥도 흘리고 먹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아침에 눈을 떠 밥을 먹고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점심 먹고 또 게임을 하고 저녁 먹고는 야구를 본다. 늘 내 일상은 이렇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러나 화요일, 금요일은 자아도취 밴드에 들어가 연주를 한다.

내가 맡은 악기는 윈드벨 쉽게 말하면 풍경이다. 난 음악의 중간이나 끝에 끼어 한 두 번의 연주를 한다. 풍경소리는 듣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내 마음이 된 냥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는 종종 원내 행사시 외부인들과 다른 거주인 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 그래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긴장감은 다소 적다 그런데 이번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자아도취 밴드가 원외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다. 바로 그날 4월20일 우리는 악기를 준비하고 옷을 맞춰 입고 무대에 섰다.

체육관에는 많은 장애인들 지역주민 관공서 직원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 무척 떨렸다.

우리처럼 휠체어로 이동하는 가족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으로 보였다. 우리가 연주 할 때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박수도 쳐주고 춤도 쳐주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고마웠다. 늘 도움만 받던 우리가 남을 춤추게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또 한 번 감사 했다. 그 외 우쿠렐라 연주, 오재미 던지기, 줄다리기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 다 참여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족이 다른 행사에서 연주를 하고 박수를 받고 있지 못할 추억 하나를 남긴 거 같아 행복하다.



증사자 힐링프로그램

옹달샘에서 힐링~♪

조주영
생활재활교사



깊은산속 옹달샘 아침편지 명상 치유센터는 고도 원의 아침편지로 유명한곳이어서 무척 궁금하였는데, 논산시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2박 3일 힐링 연수라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논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타시설의 직원들과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타시설의 근황에 대해 궁금하였던터라 업무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꺼라 생각 하며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도착 후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니 일정표에는 명상과 요가시간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명상이라는 것이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하는 지루한 시간이겠구나 하며 출발 할 때의 설레임

은 사라지고 기대치가 매우 낮아졌다. 내가 생각한 힐링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쉬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편히 쉬었다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의 생각을 확 바꿔준 계기가 된 것이 첫 번째 통나무를 이용한 명상 프로그램이었다. 일상생활과 장애인들을 케어하면서 굳어 있던 몸을 통나무 위에 얹어놓고 명상을 통하여 몸 구석구석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몸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으며 쉽다고 해도 경직된 근육이 풀어져 있지 않아 피곤한 체력이 연속되어 거주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힐링센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는 요가를 통한 명상과. 향기 명상. 걷기명상. 선무도명상. 비채명상을 참여하는 내내 볼 수 있었다. 힐링센터 직원들은 일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나도 옹달샘의 직원들처럼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동화되어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힐링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명상은 상대방이 나를 칭찬 해주는 칭찬 명상이었다. 우리는 남을 칭찬





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신을 칭찬하는 것에는 많이 인색하다. 내가 상대방의 어떠한 점을 칭찬해야 하지? 하는 다소 당황한 모습들을 같이 간 동료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우려와는 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동료들은 기쁜 모습과 따뜻한 미소로 칭찬을 하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 하는 모습이었고, 나 또한 나에게 쏟아지는 과분한 칭찬이 부끄러웠다. 나에 대한 칭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괜찮은 사람이었나?’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시설장애인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와, 배려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며, 남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 벅찼다. 칭찬의 힘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현되기에 나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며, 하루의 일과를 즐겁게 시작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남는 프로그램은 힐링 허그 사감댄스 프로그램 이었는데 그 시간 내내 같이 참여한 동료들은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춤추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박3일 내내 내 몸에 꿀 맛 같은 휴가와 명상을 통



해 자신을 돌아보고 비우고 채움이 반복되어지면서 어느새 내면으로 꽉 찬 성숙한 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온전히 나를 위해 쉴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꽉 채울 수 있어서 이 연수를 주관하여 주신 논산시청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림

"요셉반을 소개합니다"



이○기

남자중의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기님, 스포츠를 좋아하며 야구를 틀어주면 그의 집중력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야구를 정말 사랑하기에 적군 아군 구분 없이 좋아하며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그의 웃음을 보면 너무나 해맑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피 바이러스처럼 번집니다. 또 남자다움에 자상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요. 같은 방 동생이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있으면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며 토탁여 준답니다. 마지막으로 효심이 깊어 항상 엄마, 아빠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어때요? 이런 남자 끌리지 않나요?

요셉반의 셋째 어르신이며 항상 마음은 청춘이고 마음씨 좋은 우리 ○용 아저씨~

직원들이 당직하고 지쳐 앓아있으면 아침에 다가와 안마를 해주신다면 등을 두들겨 주는분이에요. 그의 눈망울보면 너무나 초롱초롱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매력의 소유자이며 흥이 많아 트로트 노래를 좋아 한답니다. 가끔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님 옆으로 나가 노래에 맞춰 신나게 앞뒤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춘답니다. ○용씨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어 진달까? 하지만 가끔 커피를 너무나 사랑해 집착남으로 변신 할때가 있는데요!! 집착남으로 변신하면 그를 말릴수가 없어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남○용

성모의 마을 인기쟁이 빵빵 웃는 아이 송○근님. 그래서 별명이 송빵빵입니다. 소리나 물체에 반응해 활짝 웃어준답니다. 미소천사지만 아무에게나 웃어준다는 단점!!! 나에게만 잘 웃어주길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은 죽을 먹다 몸이 나빠져 L-Tube를 이용해 경관급식을 한답니다. 지금은 잘 적응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답니다.

처음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이쁘고 가녀린 여자아이 같았지만 지금은 많이 성장해 몸이 왜소하지만 남자로써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송○근



이○수

성모의마을 만능 재주꾼. 몸이 불편하지만 그림이면 그림 전자기기 다른 모습을 보면 직원들이나 일반 사람들 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느껴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영화를 보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단 생각이 들어요 또 의사소통이 어려워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표현을 한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하며 쇼핑도 알아서 척척 하신답니다.

쌍둥이

떠오르는 성모의마을 마스코트 이원○, 이윤○ 형제!!

남자반의 최연소이며 여자 선생님들과 가족들에게 이름을 듬뿍 받고 있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가끔 헛갈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개성은 확연히 다르답니다~

먼저 형 이원○군은 애교가 많으며 웃음이 많아 사람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애교꾼

동생 이윤○군은 점잖으며 뾰얀 우유빛깔 피부가 매력 하지만 이윤○군이 웃음이 터지는날엔 홀린 듯이 그에게 다가가 선생님들이 재롱을 피웁니다.



이원○ & 이윤○

프로그램방

보는재미~먹는재미~담는재미~

사회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응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

- ★ 대전 세이백화점 CGV에서 영화관람 및 쇼핑 다녀 왔구요 ^^
- ★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한화와 넥센의 멋진 야구경기 관람 했어요~
- ★ 새로 조성된 논산시민공원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멋진 분수와 물놀이가 있네요~



외식프로그램

외식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음식을 먹는 기쁨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 ★ 논산 화통삼에서 삼겹살 맛나게 먹고 왔어요~~
- ★ 중식의 대가 이비가 짬뽕에서 탕수육, 짬뽕~ 맛나요~
- ★ 저희도 패밀리 레스토랑 인더키친에서 칼질하고 왔네요~~
- ★ 더워, 더워 더위가 시작되나요..? 죽천가든 보양식 오리·한방백숙으로 몸보신 좀 했어요~



외부지원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시설중증장애인과 농촌 지역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노래교실프로그램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3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은 홍순옥 강사의 위트 넘치는 진행으로 참여하는 거주인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아 마치는 시간이 아쉽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과 노화로 인해 신체적·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시설 장애인과 농촌지역노인의 억제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2016행복프로그램"

거주 장애인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위한 심리안정실이 원내에 마련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거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환경을 구비하지 못하다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2016년 행복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심리안정실 공간조성 및 기자재가 비치되었습니다. 물방울기둥, 안전거울, 회전미러볼, 스포트라이트, 안전매트 등은 중증장애인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문제인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봉사방

꿈★을 위한 한걸음~

이민선
단국대 특수교육과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회장 이민선입니다. 저희 과는 매년 장애인 시설 및 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성모의마을에 봉사를 하게 되었고, 5월 달부터 성모의마을 거주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거주인분들이 좋아해주실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모의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동안 했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주인분들께서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내일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먼저 물어봐주시고, 기대감을 나타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주인분들과 산책하기, 말벗 되어드리기, 식사보조 등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하면서 가족들 이야기 또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누었습니다. 산책 도중 거주인분께서 오랜만에 산책하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셨을 때 저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술팀

프로그램 계획에서부터 교구까지 직접준비하고 진행까지 마치면서 뿌듯함과 보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자에 대한 연구와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느꼈고 시연과 실제상황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체육팀

체육프로그램을 맡은 만큼 시설에 계신 분들이 웃으면서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조들과의 피드백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 프로그램도 당일 날 다시 변경할 만큼 그분들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갈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가족 분들은 저희가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하면서 누구보다 밝고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고 헤어질 때는 더 재밌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죄송함과 함께 감사함,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이렇게 짧은 2박3일의 일정은 끝이 났지만 성모의마을에서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요리팀

처음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요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요리를 만들고 나눠 먹으면서 더 정이 든 것 같아요. 부족한 점도 많고 서툰 점도 많았을 텐데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 01 시무식
02 평창생태마을 직원영성피정
03 부활절 미사
04 거주장애인 인권교육
05 신입직원안전교육
06 개인정보보호법 직원교육
07 지역주민과함께하는 힐링노래교실
08 장애인의 날 행사
09 거주인 건강검진
10 거주인 거소투표
11 운영위원회
12 인권지킴이단정기회의
13 성모농장 감자수확
14 개원 21주년 기념행사
15 직원 힐링연수
16 연산중학교 졸업식
17 거주인 성폭력예방교육
18 충남장애인거주시설 한마음대회
19 성모의 밤

봉사와 방문 감사합니다



- | | |
|-------------------------|---------------|
| 01 새누리당 충남도당 | 11 토지공사 |
| 02 해군홍보단 | 12 계룡초 62회 |
| 03 충남도청 해운항만과 | 13 한국타이어 |
| 04 디하모니중창단, 전민동성당에파타성가대 | 14 지원연대 |
| 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 | 15 해군참모총장님 방문 |
| 06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16 삼성화재 |
| 07 세종시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연금지급팀 | 17 대전은하수예술단 |
| 08 대형환경 | 18 연세대기비탄 |
| 09 상월부녀회 | 19 장순루 |
| 10 전민동성당 | |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대율, 쌍용2동성당, 전민동성당, 강용욱, 권민경, 김용남, 김웅전, 마디튼튼의원, 민경암, 박경인, 신소영, 양태식, 엄현주, 이지영, 장미화, 정유진, 채경란, 최봉순, 흥순옥, 흥예인



후원금 (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까지)

(주)대청공영, (주)진미식품, (주)휴베나, 금강전기, 논산공고특수학급, 대명초특수학급, 대전교구, 대전내동성당, 성모의기사수녀회, 아이러브피플, 연산중특수학급, 연산치과의원, 육군계룡사랑후원회, 임마누엘성물방, 일신주방, 정다운한의원, 청담동성당, 탄방동성당, 하나병원, 유성근, 한국드라이베이팅(주), 한국타이어, 한시랑라이온스클럽356-B, 해군정보화기획실, 해피빈, 강대훈, 강덕일, 강명순, 강복순, 강승희, 강신규, 강애선, 강영미, 강영수, 강인숙, 강일권, 강정미, 강정숙, 강차중, 강창희, 강호정, 고순덕, 고순화, 고연승, 고영숙, 고태성, 고효진, 곽동용, 곽명자, 곽성훈, 곽전구, 곽태희, 구교상, 구본관, 구자희, 구청자, 권기문, 권상로, 권수연, 권순임, 권연택, 권재순, 길숙종, 김경미, 김경숙, 김경임, 김경진, 김광한, 김근태, 김기, 김기봉, 김기철, 김길자, 김남순, 김덕, 김도희, 김동일, 김동현, 김동화, 김명숙, 김명식, 김명중, 김명화,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현, 김민관, 김민호, 김병민, 김복수, 김복순, 김봉진, 김부덕, 김상현, 김상현, 김석환, 김선아, 김선오, 김선중, 김성남, 김성숙, 김성태, 김소영, 김송우, 김수복, 김수자, 김수현, 김수희, 김숙, 김숙희, 김순예, 김순자, 김승우, 김양숙, 김양식, 김양임, 김영규, 김영부,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택, 김영희, 김옥기, 김용목, 김용철, 김용희, 김윤미, 김윤중, 김윤하,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의승, 김이열, 김익현, 김인규, 김인숙, 김일우, 김장수, 김재순,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정옥, 김정희, 김종대, 김종성, 김종심, 김종영, 김종윤, 김종임, 김종학, 김주영, 김준, 김준형, 김준호, 김진숙, 김진순, 김진식, 김진아, 김진영, 김진자, 김진팔, 김진희, 김창수, 김창식, 김창현, 김철수, 김춘달, 김춘자, 김태모, 김태운, 김택수, 김한울, 김한주, 김한준, 김현곤, 김현수, 김현옥, 김형근, 김혜경, 김홍순, 김희경, 김희성, 김희순, 김희옥, 나승준, 나인준, 나정은, 나정환, 나판균, 남궁각, 남금숙, 남봉우, 남순애, 노경우, 노덕영, 노아네스, 노애선, 노영례, 노영자, 노은숙, 노은주, 노희숙, 도인록, 류관숙, 류동열, 류영미, 류재율, 류홍, 리주옥, 모상선, 목동균, 문창규, 민경식, 민병학, 민선옥, 박관철, 박광천, 박광필, 박규진, 박근수, 박달영, 박동근, 박미나, 박미희, 박병삼, 박병택, 박복남, 박상래, 박상준, 박선용, 박선호, 박성규, 박성배, 박성연, 박송현, 박순주, 박승옥, 박승우, 박승현, 박영, 박윤자, 박은숙, 박은정, 박응천, 박인자, 박정기, 박정희, 박종찬, 박종희, 박주완, 박준성, 박지연, 박지영, 박진옥, 박진홍, 박찬면, 박찬배, 박찬주, 박찬현, 박찬희, 박창규, 박창기, 박춘자, 박해운, 박현미, 박현숙, 박현준, 박혜경, 박호준, 박효식, 박희호, 방계순, 방성식, 방영자, 배승호, 배우재, 배현미, 백길종, 백승준, 백진기, 백창진, 변경봉, 변두균, 변해숙, 변혜숙, 복진을, 서경자, 서광자, 서교분, 서교택, 서기련, 서나리, 서단아, 서명원, 서봉세, 서성환, 서장원, 서정석, 서정용, 서지연, 서평원, 선우환호, 선희순, 성상엽, 성정모, 성희창, 소성섭, 손경미, 손동래, 손석재, 손선일, 손세욱, 손은숙, 손형기, 손형옥, 송기성, 송명옥, 송수일, 송순이, 송영익, 송재훈, 송정호, 송진화, 송철영, 송춘실, 송현숙, 수상더, 승병희, 신경식, 신미숙, 신미순, 신상오, 신숙희, 신순자, 신순현, 신연화, 신이분, 신정자, 신진호, 신향순, 신형모, 신호철, 신효신, 심명옥, 심복섭, 심형석, 안남순, 안동숙, 안명순, 안문숙, 안미훈, 안명옥, 안상길, 안성호, 안주영, 양미경, 양수천, 양옥석, 양인일, 어남선, 어완, 엄기성, 엄춘실, 여운석, 연광흠, 연제혁, 염규홍, 염주란, 오경순, 오광순, 오명선, 오명학, 오미화, 오석현, 오숙자, 오연임, 오웅수, 오일교, 오점숙, 오종오, 오주영, 오주은, 오준식, 오준이, 오한나, 오현경, 오혜원, 온유진, 용명임, 우연옥, 우인자, 우전, 원옹희, 원재화, 원종철, 월드가센타, 유경남, 유경희, 유기화, 유명기, 유명희, 유미, 유부림, 유선희, 유양호, 유연희, 유열호, 유영구, 유영민, 유영철, 유은두, 유이선, 유인운, 유재현, 유향옥, 유혜영, 윤근홍, 윤길중, 윤문경, 윤병렬, 윤석권, 윤석남, 윤수자, 윤순자, 윤안예, 윤여직, 윤여철, 윤영광, 윤영휘, 윤옥자, 윤옥희, 윤완규, 윤은화, 윤재명, 윤정순, 윤중대, 윤진영, 윤한섭, 이경미, 이경순, 이경자, 이경화, 이광수, 이광직, 이규옥, 이근표, 이기남, 이기상, 이기석, 이기학, 이누욱, 이다리야, 이덕례, 이도영, 이동근, 이동수, 이동호, 이두화, 이명수, 이명자, 이민옥, 이민표, 이병진, 이복규, 이상범, 이상영, 이상욱, 이상은, 이선난, 이선량, 이선미, 이성민, 이성순, 이성원, 이성재, 이성하, 이세혁, 이수경, 이수형, 이숙영, 이숙희, 이순조, 이순호, 이승남, 이승미, 이승욱, 이연재, 이연호,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숙, 이영옥, 이영임, 이영주, 이영희, 이용구, 이용규, 이용남, 이용성, 이우연, 이우영, 이웅호, 이원길, 이원웅, 이월향, 이유미, 이윤복, 이은선, 이은수, 이은진, 이은칠, 이인엽, 이장, 이장현, 이장흠, 이장희, 이재룡, 이재순, 이재연, 이전규, 이정구, 이정미, 이정범, 이존오, 이종규, 이종숙, 이종순, 이종옥, 이주경, 이준복, 이진경, 이진경, 이진의, 이진형, 이충근, 이치자, 이택주, 이해운, 이향래, 이현선, 이현수, 이현주, 이현희, 이해숙, 이해영, 이해옥, 이해진, 이홍천, 이화연, 이흥재, 이희영, 익명, 임경수, 임대환, 임덕순, 임문화, 임미자, 임민준, 임민찬, 임범택, 임상수, 임세영, 임송옥, 임재신, 임찬웅, 임창래, 임향빈, 장경수, 장금자, 장기욱, 장남미, 장동수, 장명호, 장선옥, 장순자, 장영희, 장우상, 장원재, 장유창, 장정숙, 장진영, 장진희, 장한준, 장한업, 전경애, 전광운, 전선아, 전연인, 전영희, 전용달, 전창선, 정경

순,정경애,정계순,정병호,정보옥,정상수,정서윤,정석임,정석환,정선미,정선수,정선주,정소영,정연수,정영진,정육진,정원진,정은남,정은석,정은선,정은옥,정은주,정재구,정지풍,정지현,정창수,정철민,정총희,정태형,정하양,정혜숙,정희숙,정환림,정훈경,조경숙,조규정,조기호,조남우,조미숙,조성대,조숙자,조숙희,조영갑,조영록,조영홍,조옥분,조유성,조진,조한수,조현,조혜신,주연탁,지영옥,지영철,직원상조회,진은영,차미정,차영철,차옥남,차은,차인자,채미자,채병석,최경목,최관집,최금옥,최난숙,최덕화,최명희,최문자,최백석,최범순,최병립,최병호,최상윤,최상태,최선,최성근,최순옥,최영법,최영은,최영훈,최우연,최윤정,최은자,최인규,최인영,최인향,최재원,최정길,최주희,최풍길,최해경,최혜수,최혜연,최효인,최희례,추순복,추현진,편재영,하만웅,하무순,하영호,하옥경,하재영,하태천,한강섭,한경희,한동림,한상선,한상조,한선화,한원규,한치권,허신자,허홍근,현현섭,호승환,홍건표,홍광표,홍근선,홍궁표,홍명숙,홍성욱,홍승무,홍영욱,홍영일,홍용의,홍윤정,홍은실,황귀득,황규성,황규홍,황명구,황선철,황인욱,황태성,황현숙

물품후원

(주)애경, 강경늘봄젖갈, 강근식, 강요셉,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광석중학교, 궁골식품, 권영학가족, 김경숙, 김도희, 김동민 가족, 김부식가족, 김영교, 김원혁가족김윤미, (큰)김정임가족, 김조경, 김종필, 김창동, 김혜리가족, 노영섭, 논산푸드뱅크, 논산계룡축협(장군마트), 논산시가족봉사회, 논산시장애인단체연합회, 대전카리타스유통, 대한피엔에이치, 덕명동성당, 도룡동성당, 동방고등학교, 박보룡가족, 박서룡가족, 박성수가족, 박재성가족, 반석동성당, 방석식베드로, 법동성당, 세종시보건복지부연금정책과, 봉림농산, 산들본가, 삼성화재RC나누미, 가족, 상월농협, 상월부녀회, 상월자체발전위원회, 상조회, 새누리당충남도당, 성동식품, 손예인가족, 손종숙(스텔라), 신도안종합상사, 신순자, 신점희, 씨튼영성의집, 양주호, 염주란, 월드카센터(상월), 위재홍가족, 유광호, 유천동성당, 윤희열가족, 이경희, 이계천, 이수민가족, 이수호가족, 이윤선가족, 이성순, 이소영, 이연주, 이영숙, 이영주, 이윤서, 이현희, 이해진, 임세영, 임군수가족, 임정수가족, 자모회, 장관호, 장순루, 장재희가족, 장태산정육점, 전민동성당, 전혜선가족, 정규연가족, 정완수가족, 정혜숙, 정호섭(해군참모총장), 조정연, 조준영, 차옥남, 채경란, 최영현가족, 최인호, 최현주가족, 충남도청해운항만과, 충주성심학교, 코리안서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야쿠르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토지공사대전충남지역단, 한밭사랑회, 흥순중가족, 흥예인가족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그 외 |

냉장고, T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봉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까지)

정기자원봉사팀

72항공정비대대, 가양동성당, 갈마동성당, 계룡대근무지원단(지원연대), 계룡회, 공주신관동성당, 공주중동성당, 궁동성당, 김선우가족, 김유원가족, 김종필가족, 노은동성당(학습봉사), 대교동성당, 대전내동성당, 대형환경, 도룡동성당, 바다사랑봉사회, 부여성당, 박봉석가족, 반석동성당, 삼성화재RC나누미, 삼위일체성당, 송인철가족, 이윤서가족, 안제성가족, 전민동성당, 정양원, 정육진가족, 탁구사랑, 한국타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단), 해군정보화기획실, 흥예인가족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60항공단, 계룡초62기, 노성중21기, 논산시가족봉사회, 단국대학교특수교육학과, 대전덕명동성당, 대전동방고등학교, 대전만년동성당, 대전우편집중국, 대전전민동성당청년부, 새누리당충남도당, 세종시보건복지부연금지급팀, 연세대기비탄, 육군제2경비단, 장순루, 천안우체국물류지원단, 청주소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항공학교

이·미용봉사

이발봉사(명성이용원, 신상이용원, 형제이용원), 전민동성당(이금언), 한사랑라이온스(김경순, 오미애)

의료봉사

연산치과, 대전성모병원재활의학과, 성모피부과

꽃꽂이봉사

공주신관동성당 제대회

공연봉사

디하모니중창단, 대전은하수예술단, 전민동성당에파타성가대, 해군홍보단

미싱봉사

공주신관동성당, 이정, 진영희, 김정순, 엄병숙, 이기화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
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762-7852-13 (대표전화 : 1577-2100)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06월 30일 까지)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97,181	급 여	35,557
지정후원금	39,520	제 수 당	24,701
비지정후원금	85,786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7,796
		사회보험부담비	2,234
		기타후생경비	8,717
		기관운영비	330
		회 의 비	1,506
		여 비	46
		수용비 및 수수료	4,822
		공공요금	32,056
		제세공과금	4,456
		시 설 비	3,234
		자산취득비	56,058
		시설장비유지비	1,265
		차 량 비	212
		의료재활사업비	980
합 계	222,487	합 계	183,970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
 (1.5Km) → 성모의마을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이세상...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